立足吉林 面向全国 影响世界

길림신문

吉林省委朝鲜文机关报

吉林朝鲜文报综合新闻

# 길림신문

2025 년 9 월
20
토요일
음력 7 월 29 일

기사 제보 이메일 : news@jlcxwb.com

吉林朝鲜文报 제 6085 호 · 8 개면 http://www.jlcxwb.com.cn 国内统一连续出版物号：CN22-0030/—CH 邮发代码：11-13

###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 승리 80 주년 기념활동 총화회의 북경서 거행

# 습근평 , 기념활동 기획실시사업 여러 분야 대표 친절하게 접견

## 회의에서 기념활동에 관한 습근평 중요 연설 전달하고 연설 정신 학습 관철에 대해 포치

### 채기 접견에 참가 및 총화회의서 연설

▲ 17 일 , 당과 국가 지도자들인 습근평 , 채기 등이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 승리 80 주년 기념활동 기획실시사업 여러 분야 대표들을 친절하게 접견했다 .

[ 북경 9 월 17 일발 신화통신 ]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 승리 80 주년 기념활동 총화회의가 17 일 오전 북경에서 거행되였다 . 중공중앙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위 주석인 습근평이 인민대회당에서 기념활동 기획실시사업의 여러 분야 대표를 접견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안부를 물었으며 그들의 근면한 노력과 뛰여난 성과를 충분히 긍정하고 모두가 분발진취하고 새로운 공을 세우도록 격려했다 .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기념활동지도소조 조장인 채기가 접견에 참가하고 총화회의에서 연설을 했다 .

17 일 오전 , 인민대회당 북쪽 대청은 분위기가 열렬했다 . 10 시경 , 습근평이 대청에 도착하자 장내에는 열렬한 박수소리가 울려퍼졌다 . 습근평 등 지도자들이 참가자들과 친절하게 악수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

최근 습근평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특별히 기념활동 총화보고를 청취하고 나서 중요 연설을 했다 .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 승리 80 주년 기념활동은 장엄하고 성대하며 기세가 방대하고 인심을 격동시키며 분진을 격려하는 항전기념활동으로서 위대한 항전정신을 한층 더 선양하고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신념과 신심을 한층 더 확고히 했으며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동하는 책임을 한층 더 보여주었다 .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기념활동지도소조 및 그 사업기구는 당중앙의 결책 포치를 견결히 관철 , 시달하고 시종 높은 표준과 엄격한 요구를 견지했으며 실무적이고 세밀한 작풍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당중앙이 맡겨준 정치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했다 .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 기념활동이 불러일으킨 강대한 긍정적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 기념활동이라는 이 생동한 애국주의 교재를 지속적으로 잘 활용하고 활동이 불러일으킨 자신감 , 자부심 , 정신력을 잘 활용하고 발양하는 것을 당중앙의 각항 결책 포치를 관철 , 시달하는 것과 결부시키고 각종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는 것과 결부시켜 개혁 , 발전 , 안정의 제반 사업을 잘 수행하는 강대한 동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 정확한 항전력사관과 제 2 차 세계대전력사관을 견지해야 한다 . 력사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중국공산당이 전 민족을 령도하여 용감히 항전하여 거둔 위대한 승리에서 지혜와 힘을 얻으며 력사의 정확한 편에 확고히 서서 력사적 주도권을 잡고 력사를 거울로 삼아 끊임없이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 중국의 항전 이야기와 평화발전 이야기를 잘 전해야 한다 . 세계에 중국은 전쟁후 국제질서의 확고한 수호자임을 보여주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진력하는 책임감 있는 우리의 대국 형상을 보여주어야 한다 . 기념활동 기획실시 경험과 방법을 참답게 총화하고 대당 , 대국의 의식거행제도를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보완해야 한다 .

회의에서는 습근평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한 중요 연설을 전달했다 .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은 기념활동의 중요한 의의를 깊이있게 설명했으며 기획실시 조직사업을 충분히 긍정하고 활동 성과를 잘 활용할 데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 우리는 이를 참답게 학습 , 터득하고 관철과 시달을 잘 틀어쥐여야 한다 . 기념활동이 원만한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굳센 령도와 각 지역 , 각 부문 , 각 단위 , 사회각계와 인민대중의 큰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하고 관철하며 기념활동의 중요한 성과를 확장하고 심화하며 후속 기념활동을 착실히 잘 조직하고 선전교양을 강화하며 광범한 간부 , 군중들을 인도하여 사상과 행동을 당중앙의 정신에 한층 더 통일시키고 기념활동이 불러일으킨 애당 · 애국 열정을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강대한 동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

기념활동지도소조 부조장들인 왕의 , 윤력 , 리서뢰 , 장우협 , 왕소홍 , 오정륭 , 류진립이 활동에 참가했다 . 기념활동지도소조 성원 , 여러 사업기구와 관련 부문 책임자 동지 및 사업일군 , 사열을 받은 부대 장병 , 안전보장일선 근무일군 , 공연 참가자 , 자원봉사자 , 봉사보장일군 , 매체 기자 대표 등이 활동에 참가했다 .

## 길림성 첫 부동산분쟁인민조정위원회 연길서 설립

부동산 ( 物业 ) 관리 분야의 모순과 분쟁을 타당하게 해결하는 것은 사회기층 관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일환이다 .

18 일 , 연길시부동산분쟁인민조정위원회가 정식으로 설립되였다 . 이는 길림성 첫 부동산분쟁인민조정위원회이기도 한바 연길시 부동산 분쟁 다원화 화해 기제 건설이 한단계 승격되였음을 표징한다 .

부동산관리사업은 천만가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인민대중의 획득감 , 행복감 , 안전감과 직접 관계된다 . 도시화 진척이 빨라짐에 따라 부동산 분야의 모순과 분쟁도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 이런 모순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데 취지를 두고 이 조정위원회가 탄생했다 .

연길시부동산분쟁인민조정위원회는 주관단위인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및 연길시사법국 , 부동산관리회사 책임자 등 23 명의 조정팀원으로 구성되였으며 사무 장소는 연길시부동산교역중심 311 호에 두었다 .

이 조정위원회는 주로 부동산관리분쟁 , 부동산관리비용분쟁 , 공공권익분쟁 , 시설보수분쟁 , 업주위원회 관련 분쟁 , 주택단지내에서 생기는 기타 분쟁 조정 사업을 책임진다 . 부동산 분쟁 처리에서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부동산판공실이 주도하여 각종 정보를 열람하고 부동산 집법을 통일적으로 조률하며 조정위원회 사업일군들이 중립적인 립장에서 쌍방의 요구를 경청하고 관련 법률법규와 주택단지 관리 규약에 의거하여 쌍방을 도와 문제를 정리하며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해결 방안을 재빨리 확정하고 쌍방의 화해를 촉진하여 부동산 분쟁의 쾌속적인 해소를 확보하는바 사회 안정을 수호하는 데 유리하다 .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부동산판공실 주임 왕점권은 “부동산 분쟁 다원화 해소의 효과적인 경로를 적극 모색하여 부동산 분쟁을 예방 , 해소하는 인민조정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건물 소유자의 리익 요구 경로를 원활히 하며 법에 따라 부동산 모순 분쟁을 제때에 효과적으로 해소하여 건물 소유자와 부동산 써비스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유경봉기자

## 국경절 맞이 ‘축복 조국’ 화단 곧 천안문광장에 등장

9 월 16 일 , 올해 국경절 천안문광장 및 장안거리 연선 화훼 배치 방안이 정식으로 공포되였다 . 북경시원림록화국 관련 책임자는 성대하고 열렬하며 경사스럽고 평화로운 국경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천안문광장 중심에 ‘축복 조국’ 대형 꽃바구니를 배치하고 장안거리 연선에 10 개의 립체화단을 배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

입수한 데 의하면 올해 ‘축복 조국’ 화단은 축제 분위기 꽃바구니를 주경관으로 하는데 화단의 최고 높이는 18 메터이고 바구니 몸통 높이는 16 메터이며 바구니 지름은 12 메터라고 한다 . 바구니 남쪽체는 ‘조국 축복 ( 祝福祖国 )’, ‘1949-2025’라는 글자가 적혀있고 바구니 북쪽에는 ‘국경절을 즐겁게 보내자 ( 欢度国庆 )’, ‘1949-2025’ 글자가 적혀있다 . 바구니 안에는 아름다운 의미를 가진 꽃들이 들어있는데 그중 련꽃은 ‘화목과 아름다움’, 올리브가지는 ‘영광과 평화’ 등을 의미하며 평화의 비둘기 요소와 결합하여 ‘평화발전과 무한번영’을 나타낸다 .

한편 , 장안거리 연선의 건국문으로부터 복흥문 사이에는 10 개의 립체화단이 설치된다 . 료해한 데 따르면 이 10 개의 화단은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쑈전쟁 승리 80 주년을 기념하는 연선 화단의 기초에서 요소 교체와 식물 조정을 통해 최상의 경관 효과를 보장할 것이라고 한다 .

이외 천안문광장 량측의 록지는 길상여의 ( 吉祥如意 ) 꽃띠를 배치하는데 배치 총면적이 9,600 평방메터이고 량측의 꽃구슬은 총 18 개이다 . 장안거리 연선에는 7,000 여평방메터의 지면 재배 꽃을 심을 예정이다 .

/ 인민넷 – 조문판

## 길림 ‘전민 국방교육의 달’ 활동 반석서 가동

9 월 18 일 , ‘길림성 9.18 명기 및 2025 년 전민 국방교육의 달’ 주제활동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 반석시 정우광장에서 개최되였다 .

동북항일련군 장병 후대 , 사회각계 대표 등 수천명이 혁명선렬 및 희생된 동포들을 추모하며 국방 의식을 다졌다 .

반석시는 동북항일련군의 창설지로 항일전쟁 력사상 두개의 ‘최초’를 기록했다 . 즉 당이 령도하는 최초 항일무장 ‘반석적색유격대’를 창설했고 당이 령도하는 최초 항일근거지 ‘홍석라자항일유격근거지’를 세웠다 .

반석시항일투쟁기념관 관장 리추홍은 “동북항일련군 장병들은 동북 대지에 뜨거운 피를 흘렸다 . 반석에서 출토된 다량의 유물이 이를 증명해준다 .”고 말했다 .

3,300 여곳의 유적은 국내에서 가장 완정한 항일련군 유적군 ( 遗址群 ) 을 이루고 있으며 출토된 900 여점의 유물은 마치 기념비마냥 반석의 땅에 우뚝 서있다 .

항일련군 후대 대표이자 양정우 장군의 증손자인 마성명은 “청년세대로서 자각적으로 홍색유전자를 계승하여 맡은 바 사업을 잘하고 항일련군정신이 새시대에 새로운 빛을 발하게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개막식후 참가자들은 홍석라자항일근거지 유적지로 이동하여 길림성문화및관광청이 주최한 ‘성화 길림홍—항일련군의 길을 다시 걷다 ( 薪火吉林红—重走抗联路 )’ 행사에 참가했다 .

행렬 대오에는 백발이 성성한 로병사 후대가 있는가 하면 활력이 넘치는 어린 학생도 있었다 . 이들은 항일련군 전사들의 발자취를 따라 현지에서 벌어졌던 전투이야기에 대한 해설에 귀를 기울이며 고난으로 가득찼던 항전의 로정을 체험했다 .

수많은 유적지들은 당시 간고했던 혁명환경과 항일련군 전사들의 불굴의 정신을 조용히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 활동에 참가한 한 학생은 “이런 숲속을 걸어보니 교과서에서 배운 ‘고난에 차다 ( 艰苦卓绝 )’는 말의 진정한 뜻을 비로소 체감하게 된다 !”고 말했다 .

반석시 관련 부문의 소개에 따르면 반석시는 길림 반석 홍석라자항일근거지유적지보호중심 , 항일투쟁기념관 등 홍색자원을 잘 보호하고 잘 활용하여 일련의 애국주의교양 활동을 전개하고 문물 전시와 보호를 둘러싸고 일련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 , 추진하여 이곳을 동북항일련군의 정신적 상징지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

/ 권용 정현관 기자